
내가 아는 건재 정인승 선생님

김승곤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

1. 미국 유학을 꿈꾸었던 선생님

건재 정인승 선생님은 어려서 한문을 배우시다가 종형의 영향으로 신학문에 뜻을 두셨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 서울 정연학원과 중동학교에서 공부하신 다음 미국 유학을 위해 종로구 내자동 소재 종교 교회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셨고, 1921년 4월부터 1925년 3월까지 연희전문학교에서 문과의 전 과정을 마치고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재학 시에는 영어를 전공하셨다. 선생님이 연희전문학교 시절 존경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은 한결 김윤경 선생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결은 3년 선배로 우리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고, 선생님의 우리말 연구에 큰 영향을 준 분이다. 선생님은 정인보 선생의 수사학 강의와 피셔(Fisher) 교수의 셰익스피어 강의, 원한경 교수의 아동심리학 강의 등에서 학문적,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김윤경 선배와 정인보 선생 두 분에게서는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다. 선생님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은 바로 정인보 선생이 수사학 강의에서 ‘새벽 서리 찬바람에…….’라는 구절을 예로 들면서 우리말의 우수성을 가르친 데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송도고보의 윤치호 교장이 찾아와서 자기 학교로 와 달라고 요청하므로 쾌히 승낙하셨는데, 느닷없이 고창고보의 양태순 교장도 자기 학교로 와 달라고 간곡히 권유하매, 송도고보는 그만두고 고창고보로 가하기로 하였다. 1년간만 취직하여 여비를 마련하고 미국으로 떠나시겠다는 결심 아래 양 교장의 말을 들었던 선생님은 10년이란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고 말았다.

2. 건재 선생과 조선어학회

교단을 떠났던 선생님은 돈암동에서 염소 목장을 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 1936년 이른 봄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목장으로 건재 선생을 찾아와서 학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 일을 맡아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자, 선생님은 주저하지도 않고 즉각 승낙하여 그해 4월 1일부터 사전 편찬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외솔이 선생님을 사전 편찬의 책임자로 생각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건재 선생님이 고창고보 재직 시에 1934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글》(11~13호)에 맞춤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왔는데 당시 그 답변을 맡았던 김윤경 선생이 여간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에 정인승이란 이름이 학회 안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그 후 외솔 선생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연금되다시피 되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윤재 선생은 1937년 6월 7일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되자, 사전 편찬은 선생님과 이극로 박사 두 분이 학회를 대표하여 맡아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선생님은 사전 편찬은 물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수정 및 기초위원(1936. 11. 28.~1940. 6. 15.), 기관지 《한글》의 편집 및 발행(49~93호, 1937. 10.~1942. 4.)을 맡았고, 《한글》의 ‘물음과 대답’란의 대답을

1937년 10월부터 1949년 7월(49~108호)까지, 또 1959년 10월 9일부터 1963년 9월 30일(125~132호)까지 하셨다. 《조선말 큰사전》은 1939년 말에, 완성된 원고의 3분의 1가량을 총독부 도서관에 내어 본문 중 많은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1940년 3월 13일 겨우 출판 허락을 받았으나, 출판 자금이 없어 관계자들을 애태웠다. 그러던 중 이우식 선생이 매달 250원씩 학회 운영비를 내놓기로 하여, 대동출판사 노성식 사장의 특별한 호의로 1942년 봄부터 출판 허가를 받은 원고 조판을 시작하였다.

3. 광복 후 사전 편찬에 쏟은 열정

1942년 9월 30일, 이극로, 권승욱, 건재 선생님 세 분이 밤새도록 사전 편찬 일을 하고 10월 1일 새벽에 퇴근하여 자택으로 발을 옮겼다. 원고 일부가 인쇄에 부쳐졌고 남은 원고 정리가 바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다. 10월 1일 새벽 선생님이 집에 도착하여 보니 형사 두 명이 와 있었고 바로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의 시발이었다.

선생님이 함흥형무소에서 풀려나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전 편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지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수소문하여 보니 원고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증거물로 함흥경찰서에 압송되었는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일차 선고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상고하자 이 원고가 서울로 운송되는 도중에 해방이 되어 서울역에 있는 운송 회사의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학회에서 알고 곧 찾아와서 작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당시에는 사전학에 관한 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 지침서도 없었으므로 사전 편찬에서 생기는 문제는 편찬원들이 토론하고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사전 편찬 중에 있었던 웃지 못할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말에 ‘궁둥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관련된 말을 조사해 보니 ‘궁둥이, 궁텅이, 엉덩이, 엉텅이, 응덩이, 응텅이, 방둥이, 방똥이’ 등이 있었다. 여기서 ‘궁둥이’ 계통의 말은 ‘ㄱ’자 줄에, ‘엉덩이’ 계통의 말은 ‘ㅌ’자 줄에, ‘방둥이’ 계통의 말은 ‘ㅂ’자 줄에 각각 카드를 찾아내어 벌여 놓고 건재 선생에게 해결책을 물었다.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자, 옷을 벗고 ‘궁둥이’를 내어 놓고 어디까지가 ‘궁둥이’이고 어디까지가 ‘엉덩이’이며 어디가 ‘방둥이’인가를 토론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말 속담에 ‘궁둥이 내외’란 말은 있어도 ‘엉덩이 내외’란 말은 없음을 알고 이 두 말이 다름을 알게 되매 건재 선생님은 ‘궁둥이’는 ‘엉덩이’ 아래로서 앉으면 바닥에 닿는 부분이라 하고 ‘엉덩이’는 ‘볼기’의 위에 있는 부분이라 하셨다. 이 외에 여러 시간의 논란 끝에 ‘볼기’는 ‘뒤쪽 허리 아래로 허벅다리 위의 좌우 쪽으로 살이 두둑한 부분’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사전 편찬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건재 선생을 비롯한 편찬원들이 얼마나 정열을 쏟았는가를 알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밝힐 일은 광복 후 첫째 권 조판을 다 마쳤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중 일부가 허물어져서 야단이 났던 일이다. 외솔 선생도 자신이 없다 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건재 선생이 나서서 꼼꼼히 처리하시어 완전히 원상태로 복원하셨고, 이에 학회에서는 박수가 터지고 모두 크게 환호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선생님은 박봉에 생활고로 나날을 보내면서도 《조선말 큰사전》이 완간되기까지 최선을 다하신바, 그 업적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4. 선생님의 이모저모

글쓴이가 선생님께 배울 때의 일이다. 여름 어느 날 종로의 신흥반점에서 술을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 학자가 ‘이’

모음을 중성모음이라 하였는데, 양성·음성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말한다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 여쭙었더니, 선생님은 거침없이 ‘이’는 음성모음이라고 하셨다. 그 까닭을 여쭙었더니 우리말의 고모음은 모두 음성모음이기 때문이라 하셨다. 사실 그 말씀이 옳았음을 알고 그 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또 선생님은 좌담을 참 잘하시는 어른이었다. 한 번은 사람이 늙으면 느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면서 말씀하셨다. 첫째, ‘체중이 늘다.’ 하시고는 젊어서는 계단을 잘도 오르내리는데 늙으면 천천히 오르내리게 되는 까닭이 체중이 늘어서라고 하셨다. 둘째는 ‘시력이 늘다.’고 하시면서 젊어서는 책을 눈에 가깝게 대고 글을 읽으나 늙어서는 글을 멀리하고 읽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셋째는 ‘목이 늘어났다.’고 하시고 젊어서는 식사를 할 때 목을 빼지 않고 잘 먹으나 늙으면 목을 꼭 빼고 음식물을 삼키기 때문이라고 하시어 좌중을 웃기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주역의 대가이시기도 하였다. 글쓴이가 대학원에서 ‘훈민정음’ 강의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제자해’를 강의하실 때 ‘괘’를 척척 그려내면서 자유자재로 풀이하셨다. 즉, 태극에서 음(--)과 양(—)이 갈리고 여기에서 사상이 생기며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고 하시고는 첫째, 건(乾)으로 뜻은 ‘하늘’이요 괘는 ≡(乾三連), 둘째는 태(兌)로 뜻은 ‘못’이요 괘는 ≡(兌上絶), 셋째는 이(離)로 뜻은 ‘불’이요 괘는 ≡(離中虛), 넷째는 진(震)으로 뜻은 ‘우레’요 괘는 ≡(震下連), 다섯째는 손(巽)으로 뜻은 ‘바람’이며 괘는 ≡(巽下絶), 여섯째는 감(坎)으로 뜻은 ‘물’이며 괘는 ≡(坎中連), 일곱째는 간(艮)으로 뜻은 ‘산’이며 괘는 ≡(艮上連), 여덟째는 곤(坤)으로 뜻은 ‘땅’이며 괘는 ≡(坤三絶) 등이라 하시면서 유창하게 설명하셨다. 64괘는 이 팔괘를 거듭하여 만든 것인데 ‘제자해’의 ‘곤복지간위태극(坤復之間爲太極)’이라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64괘 중의 건(乾)≡≡, 곤(坤)≡≡≡, 구(姤)≡≡, 복(復)≡≡≡, 돈(遯)≡≡, 임(臨)≡≡≡, 부(否)≡≡≡, 태(泰)≡≡≡, 관(觀)≡≡≡, 대장(大壯)≡≡≡, 박(剝)≡≡≡,

쾌(快)≡≡ 등 12괘를 그려서 곤(坤)과 복(復)의 사이가 태극이 된다고, 곧 ‘곤→태극(0)→복’이 된다고 풀이하셨다. 건은 음이요, 곤은 양이라 하여 음과 양은 일정불변의 것이 아니요, 양이 음을 낳기도 하고 음이 양을 낳기도 한다고 하셨다. 과거 부산대학교 박지홍 교수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선생님께 문의하였더니 선생님은 “곤괘(≡≡≡)는 음(--)뿐이니 완전히 째째하여 아무것도 없는 형태요, 복괘(≡≡≡)는 곤괘에서 양(—)이 간신히 하나 생겨난 상태이니,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사물이 비로소 생겨난 형태이다. 천지창조의 순간이라 하겠다. 이는 곧 ‘곤’이 ‘복’이 되려면 ‘곤→태극(0)→복’의 경로를 밟아야 함을 뜻하며, ‘태극’이 움직여서 ‘복’이 생겨났음을 일러준 것이다.”라고 하시었다고 하였다.

선생님은 한글학자이면서 애국자였다. 언젠가 건국대학교 개교 기념 특별 강연회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첫째로 애국지사들이 국외에서 독립투쟁을 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나라 안에서 애국지사들이 투쟁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한글학회에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하여 무지했던 국민들을 일깨운 계몽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싹터서 해방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미국이나 연합군의 힘에 의하여 나라를 되찾았다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만큼 선생님은 애국자요, 한글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오신 위대한 학자였다.

또 선생님은 도덕군자였다. 평소 남의 장점은 말하여 칭찬하시되 단점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하여 여쭙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분과는 사이가 좋지 않으시구나.’ 짐작하였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남에게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남의 길흉사에는 빠지는 일이 없었으며 집안과 자신에 관한 자랑은 더더욱 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성격이 깨끗하시던지 별명도 없었고 부정과는 타협하는 법이 없었으며 도리에 벗어난 일이나 말은 하지 않으셨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니 자연히 과묵할 수밖에 없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때에 초하루 보름이면 반드시 꽃을 들고 산소를 찾으셨던 선생님, 부부 금실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유교 집안 출신이라 가례는 엄격하게 지키셨던 깨끗한 신사였다.

끝으로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조선어학회 사건 때 고문을 가장 악질적으로 한 사람은 고등계 형사 부장이었던 안정묵이라는 자였고, 김전치라는 자는 자기 스승이었던 이윤재 선생을 보고 “네가짓 놈이 선생이나? 개xx 같은 놈 같으니, 맛 좀 봐야 바른대로 대겠느냐?”하고 마구 두들겨 뺐다고 하였다. 이 이외에도 한국인 악질 형사로는 박동철과 이토(본명 윤○○), 주병훈, 마쓰야마(본명 이○○)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 출세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만류하던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온갖 만행을 한 자들이라 하였다.

광복 후 어느 여름날, 건재 선생이 을지로 입구에 있었던 내무부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달려오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기에 보니까 악질적인 고문을 했던 수사계 주임 주병훈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광복 후 홍원 청년들이 안정묵을 잡아다가 코를 꿰서 등에는 ‘나는 애국지사들을 악질적으로 고문한 개놈’이라는 글을 쓴 판을 매게 하고 홍원 시내를 한 바퀴 돌리고는 때려죽였는데, 자기는 밤에 도망하여 월남하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고생하니 선생님께서 직장을 구해 달라고 애원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취직을 시켜 주었다고 하셨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과거를 상관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이 참다운 도덕군자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논어 팔일(八佾) 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루어진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수행한 일은 간하지 아니하며 지나간 일을 탓하지 아니한다.’ 선생님은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였다.

이처럼 선생님은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온화한 성격으로 언제나 조용하게 지내신 어른이시다. 《큰사전》 편찬의 주무를 맡으셨던 까닭으로 조어론 분야의 정밀하고도 정확한 기술 면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독보적 권위를 가진 어른이었다.